



## 宇宙船 비글號

(The Voyage of the Space Beagle)

반 · 보그트 (Alfred Flton Van Vogt)

徐 光 云 譯

(韓國SF作家클럽會長)

퀵은 행성상에서 먹이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 황폐한 행성에서 厚形質(이드)을 찾아내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 했다.

때마침 행성을 조사차 기착한 우주선 비글호가 나타난다. 얼핏 보기에 고양이를 닮은 아주 흉악한 퀵은 착한 짐승인양 위장하고 비글호에 잠입한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우주선 비글호에서 퀵은 차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퀵은 차례차례로 승무원을 덮쳐 죽여간다. 그 수법은 아주 잔인해서 단 한번에 승무원의 머리를 두들겨 깨고 그 몸에서 칼륨만 빨아먹는다.

처음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승무원들조차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퀵을 죽이려고 하나 이미 때는 늦어 희생자가 계속 늘어난다.

더욱이 이 괴물은 전기자물쇠로 잠근 우리도 손쉽게 빠져나오는가 하면 초음파 총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편을 통하여 활약하는 주인공 엘리오트·글브너이다.

그는 젊지만 우수한 情報綜合學者(백설리스트)이다. 정보종합학(백설리즘)이란 지나치게 전문화된 여러 학문분야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글로브너는 일본인 考古학자 카리다의 도움을 받아 이 괴물에 덤벼든다. 계책을 써서 퀵을 기계공작실로 몰아넣었으나 도리어 수리중이던 구명정을 빼앗기고 만다.

퀵은 스스로 이를 수리하여 비글호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구명정을 발진시켜 비글호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가속하기 시작한다.

무난히 빠져나온 것으로 여겨진 순간 배후에 있었던 비글호의 모습이 별안간 사라지고 만다. 그러자 몇분 후에 후방으로 사라졌던 비글호가 느닷없이 전방에 나타난다.

퀵은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완전한 패배였다. 비글호가 보통 3시간 걸리는 減速을 反가속장치에 의해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첫번째 이야기)

두번째 이야기는 비글호가 목적지를 향해 항행 중 異星人들로부터 최면공격을 받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정보종합학의 훈련을 받은 글로브너를 제외한 승무원 전원 최면상태에 빠지고 만다.

가까스로 일부의 최면을 풀고 반격에 나선다. 공격을 가해온 敵은 (종말기농민) 단계에 놓인 鳥人들이었다. 그들은 讀心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인 발전을 거치지 않은 채 최종단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들의 공격은 실인즉 우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이었다. 여기서도 정보종합학이 활약을 한다. 글로브너는 거꾸로 鳥人들에게 자기네 별로 돌아가도록 암시를 주어 간신히 최면공격을 물리친다. (두번째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괴물 이크스틀을 우주선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

고만다. 이크스틀은 고향인 행성 그물을 대이변으로 잃고 난 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섬우주에 정착하려고 원하고 있었다.

이크스틀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두고 우주선 비글호에 신는다. 그런데 이 괴물은 우주선 속의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가 있다.

다만 力場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그러나 우주선 전체에 力場을 걸게 되면 비글호 자체가 파괴되고 만다.

이크스틀은 <초기농민>단계였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행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生殖을 원하는 욕망이었다. 아들을 만들어 자기의 피가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 차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울>을 붙잡아야 한다. 그 속에 자기의 씨알을 심어 하루 빨리 자기의 동우리를 증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클로브너는 사람을 미끼로 삼아 괴물을 없애기로 작정한다. 그리고선 승무원이 이크스틀의 습격을 받으면 원자포로 말살시킬 작전을 세웠다.

그런데 큰 차질이 생기고 만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한 사나이가 바닥에 엎드리는 일을 잊고 원자포 포수를 향하여 초음파 총을 발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자포의 작동스위치가 잘못 켜지고 만다. 작전은 실패한다. 그동안 5명의 사나이가 붙잡혀 <구울>이 되고 만다. 그러나 씨알이 부화하기 전에 그들을 구조해 내는데 성공한다.

이크스틀은 초조해졌다.

그러던 참에 별안간 비글호의 승무원들이 우주선을 내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괴물도 덩달아 우주선을 탈출한다.

일단 비글호에서 떨어져 앞뒤를 살피려고 괴물들이 접근해 왔을 때 승무원들이 여러 척의 구멍정에 분승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舷측의 입구가 꼭 닫아진다. 그러자 우주선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크스틀은 절망끝에 드러눕고 만다. (세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다시 섬우주 전역에 퍼진 방대하고 평만한 無定形의 상태로 생존하고 있는 아나피스라는 괴물의 생태가 묘사된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종합학자 클로브너와 차기 대장을 노리는 켄트와의 싸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에 켄트가 정보종합학을 이해함으로써 해피·앤드로 끝난다.

## 작가와 작품

작가 반·보그트는 1912년 홀랜드인을 양친으로 캐나다의 위니펙에서 태어났다.

학교를 나오자 여러 직업을 편력하면서도 소설을 썼다. 처음에 팔린 소설은 SF가 아니었다. 그는 1939년에 발표된 <우주선 비글호>의 첫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며 4편의 중단편중 가장 걸작인 <검은 파괴자>로 SF계에 데뷔했다.

그후 10년간에 걸쳐 켄멜이 편집했던 어스타운딩誌에서 활약, 50년대의 톱클라스 SF작가였다

비글호는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이 항해했을 때 편승한 영국해군의 측량선 비글호에 탄 것.

그는 <슬랜>, <이사의 武器店>, <非A의 세계>, <원자제국>, <우주풍의 저편> 등 모험적요소가 짙은 작품을 많이 썼다.